

중국車の 역습... '동풍소콘' 국내 진출 "수입차 1위 목표"

가성비 기반 품질·안전성 갖춰
판매 네트워크·AS정비망 확충
경상용차·SUV전기차도 개발
CJ대한통운과 물류담당 MOU

“중국 114개 AS 정비망 구축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동풍소콘(DFSK)의 한국 진출 파트너인 신원CK모터스 이강수 대표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판매목표를 1500대로 잡고 향후 5년 뒤 수입차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DFSK의 수입사인 신원CK모터스는 10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라다이스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DFSK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종과 경상용 트럭 및 밴 5종을 선보였다.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는 “중국의 자본력과 유럽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글로벌시장에서 인기 있는 중국차들을 연속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라며 “올해 판매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



Glory 580(PHEV)

목표는 1500대이고, 향후 5년 내에 한국 수입차시장 1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DFSK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업계에선 중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품질 논란을 없애고 AS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가성비를 기반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에 걸맞게 판매 네트워크와 AS 정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업체별로 부품 고장 진단 스캐너 등을 확보하는 등 중국차에 대한 AS 신뢰를 높이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산은 AS가 안된다는 편견을 깨면 자연스럽게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엔 DFSK 사장은 “한국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며,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풍소콘의 제품들이 한국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동풍소콘은 경상용차뿐 아니라 PHEV, SUV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차들도 지속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PHEV를 포함한 중형 SUV 글로리(Glory) 시리즈는 2017년 중국 내 글로리 580 한 차종만으로 17만 6000대가 판매될 정도로 최고 인기 있는 차종이다. 이 차는 2008년부터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유럽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꾸준히 품질 수준을 높여왔다. 신원CK모터스는 동풍소콘의 글로리 가솔린 모델을 올해 하반기에, 글로리-PHEV는 내년 초에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리 시리즈의 가격은 미정이다.

또 이날 함께 선보인 화물차 K01은 0.7톤급의 미니트럭으로 국내 제품 중 포터와 라보의 중간급이며, 라보에는 없는 각종 편의와 에어백, ESC 등 안전장치들을 대거 기본으로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신차발표회에 K01과 같이 선보인 동풍소콘의 0.9톤 소형트럭 싱글캡(C31)과 더블캡(C32), 2인승과 5인승 소형 화물밴(C35)도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K01은 1110만원, C31은 1250만원, C32는 1350만원에 판매하며 화물밴인 C35의 2인승과 5인승의 가격은 각각 1490만원과 1560만원이다.

한편 신원CK모터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신원CK모터스의 차량과 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펌팩 PDI(차량 인도 직전 검사)센터까지의 물류를 담당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원CK모터스가 국내 수입하는 물류는 물론, 부품물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원CK모터스의 안정적인 국내 수입과 CJ대한통운의 중국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명훈 기자 ysw@metroseoul.co.kr

일본車の 공습... 혼다, 신형 어코드 韓공략

160개국서 2000만대 이상 판매
상품성 강화한 10세대 제품 출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으로 일본차들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품성을 강화한 신차를 출시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코리아가 최근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C’로 흥행몰이에 나선 가운데 혼다코리아는 10일 10세대 신형 어코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공략에 나선다.

어코드는 1976년 출시 이후 지난 42년

간 전세계 160개국에서 약 2000만대 이상 판매된 혼다의 명실상부한 월드 베스트 셀링 세단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7세대를 출시하며 지금까지 3만 9000여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며 2008년 8세대는 단일 모델로는 최초로 한 달에 1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차량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신형 어코드는 전 모델에 비해 앞뒤 바퀴축 사이 간격(휠베이스)이 2830mm로 넓어졌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도 뒷좌석 아래 탑재해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차체 강도와 강성을 높이고 앞좌석 무릎 에어백을 넣어 안전에 신경을 썼다. 1.5 터보와 2.0 터보, 하이브리드 등 세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는 “혼다의 월드 베스트 셀링 세단 어코드가 디자인, 성능,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타협 없는 혁신을 이끌어내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역대 어코드 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감 없이 나타내는 10세대 어코드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혼다만의 ‘달리는 기쁨’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코드는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의 4가지 모델로 출시되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와 어코드 하이브리드 투어링은 혼다 센싱, 레인 와이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식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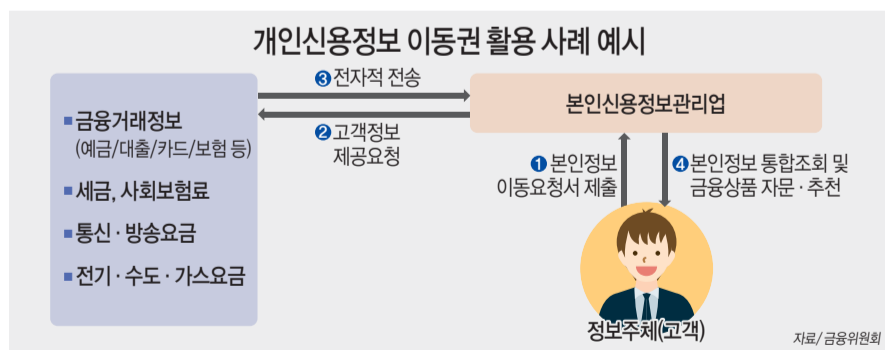
혼다 10세대 신형 어코드.

어 시프트 등 각종 프리미엄 사양이 추가 적용됐으며, 주행 환경 및 노면에 맞게 감쇠력을 조정하는 어댑티브 댐퍼 시스템을 탑재해 한 차원 높은 승차감을 제공한다.

어코드는 화이트, 실버, 메탈, 블랙 4가지 컬러가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되며 2.0

터보 스포츠 전용으로 레드, 하이브리드와 1.5터보 모델에는 블루, 샴페인, 커피 메탈 컬러가 추가 적용된다. 가격은 1.5터보 3640만원, 2.0 터보 스포츠 4290만원, 하이브리드 EX-L 4240만원, 하이브리드 투어링 4540만원(VAT 포함)이다.

/성명훈 기자



금융사 개인정보, 활용 알리고 보장 늘린다

복잡하고 길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보기 쉽게 바뀐다.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개인정보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사가 강조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동의해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 정보주체에게 전달한다.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주고, 고객이 원할 경우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도 도입한다. 정보활용 동의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해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급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등급은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한다. 가령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할 경우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엔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사전 정보제공 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사후거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

자금세탁·테러자금 내부통제의무 강화

앞으로 금융지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의무가 강화된다. 또 특정금융거래 검사수탁기관인 금융감독원 등 10개 기관의 공통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를 앞두고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면제됐던 법 제5조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금법 제5조는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 체제의 수립 ▲업무지침 마련 ▲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이다. 그동안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엔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일부 면제해왔다. 앞으로는 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제도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에선 각 검사수탁 기관에 일관성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부여했다.

제재기준도 구체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신화기자